

베트남 스마트 금융 시장 동향

(20.08.27,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)

□ 베트남 스마트 금융 현황

- 베트남은 인구 규모가 9,500 만명 이상이며 평균연령도 약 30세로 매우 낮고,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매년 7%에 가까운 높은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로, 베트남의 금융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황금기에 있다고 평가됨.
 - 빠른 산업의 발달에 따라 기업 대출 증가, 부동산 용자 등으로 기업금융이 성장하였고, 소비자 금융시장 역시 연 60% 가까이 성장할 정도로 베트남의 금융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
 - 세계경제포럼(WEF)가 최근 발표한 세계 금융 경쟁력 지수에서 베트남은 2018년 144개 국가 중 77위를 하였으나,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금융 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2019년에 67위로 상승함
 - 최근에는 금융과 ICT를 결합한 디지털 경제, 디지털 बैं킹 및 핀테크 등이 금융산업에 형성되면서 시장 흐름이 변화하고 있으며 금융산업의 잠재성이 매우 큰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음.
- 하지만 산업 전반의 ICT 도입 및 적용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서 몇 가지 해결해야 할 점이 있음
 -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로 인한 정부의 은행 자본규제로 인한 시장 혼란, 빈번한 고객 예금 횡령 등과 같은 금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며
 - 국가별 데이터베이스와 각 기업의 데이터베이스가 연동되어 있지 않아서 국내 및 글로벌 금융산업과의 연동성이 떨어지며 시스템이 전산화 되어있지 않아서 업무 처리가 느리고 비효율적인 것임
 - 또한, 금융권의 네트워크 보안이 매우 취약한데, 2019년 사이버 공격수가 104% 증가했음에도 기업의 25%만이 사이버 보안 위험을 식별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고

- 베트남은 국민들의 계좌보유율이 매우 낮고 현금을 주요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국내의 자금 흐름이 투명하게 파악되고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이 주요 해결 과제로 꼽힘

□ 현금 없는 사회를 꿈꾸는 베트남

- 베트남은 현금을 사용하는 지불 습관, 높은 금융 문맹률, 신뢰성, 수수료 등의 이유로 베트남은 아직 전체 소비의 90%를 현금으로 지출하는 현금 사회에 머물러있으며, 계좌 보유율은 약 30%에 불과함
-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한국과 다르게 대부분 COD(Cash On Delivery) 방식을 통해 현금 결제를 함.
 - 베트남 전자상거래의 협회(VECOM)는 2019년 전자상거래 결제 시 현금을 사용하는 비중이 약 70%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함
 - 베트남 전자상거래·디지털경제국(iDEA)의 2017년 보고서에서 발표한 89%라는 수치와 비교할 때 70%는 상당히 감소한 수치이지만, 베트남 소비자들은 여전히 현금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
- 베트남 정부는 현금 없는 사회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52개 시·성(Province) 도시의 학교와 병원 등 각종 공공 기관에 결제 앱, 카드 리더기, QR 코드 스캐너 등을 도입하였음
- 2020년 베트남 정부는 결제 시스템 도입이 전국 모든 지역에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음. 베트남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학교 및 병원 등의 공공 서비스 기관은 연말까지 현금 결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며, 각 기관은 비현금 결제 도입에 대한 대처 방안을 수립하고 있음


□ 핀테크 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베트남

- 베트남 정부는 이와 같은 자국의 금융산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핀테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음. 핀테크를 활용하여 유연한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성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거래

시스템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 등을 추구하고 있음

-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에 이어, 두 번째로 핀테크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국가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베트남의 핀테크 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
 - 아시아 시장 전문 컨설팅 회사 Solidiance의 전문가들은 2020년까지 베트남의 핀테크 시장이 약 78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함
- 베트남 중앙은행은 2020년도 금융 개혁 과제로 △인플레이션 안정 등의 거시경제 정책 △신용 기관 구조조정 계획 △행정체계 개혁 △통화 및 은행 관리 체계 강화 △비현금 결제 활성화 총 5대 과업을 발표함
 - 5대 과업 중 가장 핵심은 전자결제 활성화를 통한 ‘현금 없는 사회’ 만들기이며 이를 위해 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함
 - 비현금 결제를 활성화시키는 이유는 현금흐름의 투명성 확보와, 베트남 경제의 세계 경제 편입을 위한 것임
- 전자결제 시장은 기업 수와 투자 규모 면에서 베트남 핀테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큼. 베트남 내 핀테크 분야의 기업 약 150개중 32개의 기업이 대부분 모바일 페이 솔루션 개발기업으로 전자결제 중개기업으로 분류됨
- 베트남 중앙은행 결제부에 따르면 Payoo, MoMo, AirPay, MoCa, FPT 총 5개 기업이 베트남 전자결제 시장에서 약 90%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

베트남의 주요 전자결제 플랫폼

결제 플랫폼	소개
	Vi Viet은 온라인 비 현금 결제 수단 인LienVietPostBank의 디지털 은행임 고객이 입금, 현금 인출, 이체, 상품 및 서비스 대금 결제 및 기타 서비스 사용할 수 있음

 <p>Thanh toán trong 2 giây</p> <p>Zalo Pay</p>	<p>ZaloPay는 합자 회사 VNG (VNG)가 개발한 모바일 결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베트남의 카카오톡으로도 불리며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중 하나임</p> <p>온라인 송금, 청구서 결제, 전화 충전, 카드 결제, 선물 보내기 등 많은 기능을 통해 ZaloPay는 MoMo, ViettelPay와 함께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 중임</p>
 <p>123Pay</p>	<p>123Pay는 VNG Corporation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로 전자 결제, 수금 지원 서비스, 전자 지급 서비스 등을 제공함.</p>
 <p>Bảo Kim pay</p>	<p>Bao Kim pay는 통신 요금, 비자 카드 결제, 무료 송금, 급여 자동 지불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함</p>
 <p>Payoo</p>	<p>Payoo는 350가지 이상의 청구서 결제 지원, 게임 구매, 통신 요금, 항공권, 영화 티켓, 기차표 등을 할인 혜택과 포인트 제도를 통해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음</p>
 <p>Wepay</p>	<p>WePay는 모바일을 통해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국제 보안 기준을 충족시켜서 보안성이 뛰어남</p> <p>신용 카드 등록, 은행 카드, 인터넷 뱅킹 서비스 또는 WePay 전자 지급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음</p>
 <p>MOMO</p>	<p>MoMo를 통해 전기, 수도, 인터넷 요금 등을 지불할 수 있으며 최대 4% 할인 혜택을 주며 이외에도 항공권, 레스토랑, 보험 서비스 등 대부분의 분야에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음</p>

□ 블록체인을 통한 스마트 금융 구축

- 베트남 정부는 자국 금융산업의 현대화를 위해서 블록체인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고 있으며, 통신회사(Viettel), IT(FPT), 항공 서비스 회사(Vietjet Air) 등 많은 국영, 민영기업들이 블록체인 연구소 설립 및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
- 현재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전역에 약 40개의 블록체인 분야 스타트업이 있으며 하노이와 호치민을 중심으로 블록체인과 관련된 세미나 개최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음

- 베트남은 전세계 미국, 중국, 러시아, 한국과 일본 다음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암호화폐 투자 및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평가됨
- 금융기관, 시중은행, 중앙은행 등 금융업계는 블록체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이며 블록체인 산업의 발달과 함께 금융거래 시스템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
- 최근 호치민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산업 분야를 넘어서 도시 각 분야에 적극 활용해서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고 교통, 환경, 치안 등 여러 도시 문제를 개선 및 해결할 것이라고 발표함
- 베트남 금융시장의 블록체인 도입 사례로는 결제중계망 나파스(Napas)와 협력중인 베트남 3개 은행 중 하나인 TP은행(TPBank)이 블록체인 플랫폼 리플넷(RippleNet)을 자금이체에 도입한 것임
 - TP은행(TPBank)은 베트남 최초로 국가간 송금에 블록체인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시킨 사례로 베트남 금융 산업에 새로운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과 일본이 국가간 송금의 주고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


*이미지: TP BANK 로고

□ Covid19로 인한 베트남 금융 산업의 변화

- 베트남의 금융산업 분야도 Covid19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은행의 수익성 및 GDP 성장률 등 각종 지표에서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함
- 베트남 중앙은행은 각 금융기관에 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으며 각 금융기관은 대출금 상환 시기 조정, 이자 감면 등을 검토하였음

- Covid19는 금융을 포함한 베트남 전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지만, 한편으로 베트남 금융 시스템을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음
 - Covid19로 인해 재택근무가 권장되고 오프라인 상점이 영업을 중지하는 동안 식료품과 소비재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는 등 소비자의 구매 방식과 패턴에 많은 변화가 생겼음
 - 소비 패턴의 온라인 이전으로 인해 전자결제 플랫폼 가입자수가 증가하고 비현금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임
 - 실제로 베트남의 설날인 땃(Tet)부터 2020년 3월 중순까지 결제중개망 Napas의 데이터에 따르면 비현금 결제거래의 총 수는 2019년 같은 기간대비 76% 증가했으며 총 거래 금액은 124% 증가했음
- 베트남 중앙은행은 Covid19 상황 하, 비현금 결제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2020년 3월 25일부로 특정 조건 하에 은행 간 이체 수수료를 연말까지 인하하도록 조치하였고
- 현지은행 및 핀테크 관련 기업은 자사가 구축한 모바일 뱅킹과 Covid19 보험 상품 서비스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Covid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핀테크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이용 중임
- 베트남 금융시장은 Covid19를 통과하며 정보보안이나 현금거래 등 고질적인 취약점이 개선되고 선진 금융시스템으로 한발짝 나아가게 될 것으로 전망함

<참고 웹사이트>

1) 디지털 데일리

http://m.ddaily.co.kr/m/m_article/?no=165319

2) 한국무역협회

<https://www.kita.net/cmmrcInfo/cmmrcNews/cmmrcNews/cmmrcNewsDetail.do?pageIndex=1&nIndex=53556&sSiteid=1>

3) 한국무역협회

http://m.ddaily.co.kr/m/m_article/?no=165319

4) 경영 포럼 뉴스

<https://enternews.vn/kho-chuyen-doi-manh-sang-thanh-toan-so-hau-covid-19-169891.html>

5) 금융시장 잡지

<http://thitruongtaichinhliente.vn/thi-truong-tai-chinh-viet-nam-vuot-qua-su-can-duong-cua-dai-dich-covid-19-28228.html>

6) 금융시장 잡지

<http://thitruongtaichinhliente.vn/tac-dong-va-giai-phap-ung-pho-dich-benh-covid-19-cua-ngan-hang-thuong-mai-viet-nam-27488.html>

7) Kotra 하노이무역관

<https://news.kotra.or.kr/user/globalAllBbs/kotranews/list/781/globalBbsDataAllView.do?dataIdx=180942&column=&search=&searchAreaCd=&searchNationCd=&searchTradeCd=&searchStartDate=&searchEndDate=&searchCategoryIdxs=&searchIndustryCateIdx=&searchItemName=&searchItemCode=&page=1&row=10>